

# 벤투 사단, 이강인·손흥민 등 현지점검



파울루 벤투 한국 남자 축구국가 대표팀 감독이 이강인(18·발렌시아)과 손흥민(26·토트넘 홋스퍼) 등 유럽에서 뛰는 태극전사들의 컨디션 점검에 나선다.



벤투 감독은 11일 스페인 발렌시아 메스타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2019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발렌시아와 레알 소시에다드 경기를 관전했다. 중계 카메라에

발렌시아 경기 중계 화면에 벤투 잡혀

권창훈·백승호·정우영도 점검 예정

벤투 감독의 모습이 잡히기도 했다. 이날 경기에 이강인은 출장하지 않았다. 벤투 감독과 이강인은 경기 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벤투 감독과 코칭스태프들은 지난 설 연휴를 앞두고 유럽으로 출국해 유럽에서 뛰고 있는 한국인 선수들을 점검하고 있다. 3월 A매치에 소집할 수 있을 선수들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날 벤투 감독이 찾은 이강인 뿐만 아니라 백승호(22·지로나)와 정우영(20·바이에른 뮌헨) 등도 대상이다. 지난해 12월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복귀해 프랑스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권창훈도 불

예정이다.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UAE) 아시안컵에 출전했던 선수들도 점검 대상이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무서운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손흥민도 본다.

손흥민은 14일 영국 런던 웬블리 스타디움에서 독일 분데스리가의 강호 도르트문트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홈경기 출전이 유력하다.

벤투 사단은 또 이재성(26·홀슈타인 킬), 최근 컨디션이 좋은 이철용(30·보훤)도 확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어떤 경기를, 누가 어떻게 보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KIA, 연습경기서 한승혁 호투 눈길

日 야쿠르트전 20닝 30개 투구 무실점...최고 구속 147km

KIA 타이거즈가 일본 야쿠르트 스왈로스와의 연습경기를 시작으로 실전 감각 끌어올리기에 나섰다. KIA는 11일 일본 우라소 야구장에서 열린 야쿠르트와의 첫 연습경기에서 3-5로 졌다.

2회 김민식(30)의 중견수 희생플라이로 선제점을 낸 KIA는 7회와 8회 각각 최정민(30)과 유민상(30)의 적시타로 한 점씩을 더 보태며 3-0으로 달아났다.

하지만 8회말 이민우(26)가 만루 홈런을 얻어 맞아 역전을 당했고 다시 뒤집지 못했다.

이승운 패배였지만 희망은 있다. 올 시즌 선발 후보인 한승혁(26)의 호투다.

이날도 선발로 가장 먼저 마운드

에 오른 한승혁은 2이닝 동안 3개의 공을 던지면서 무피안타 1볼넷 2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최고 구속 147km를 찍었고 커브와 슬라이더, 포크볼을 고루 섞어 던졌다.

아직 올 시즌 선발진을 확정짓지 못한 KIA로서는 한승혁의 호투에 기대감이 실렸다.

영건의 활약도 돋보였다. 두 번째 투수로 등판한 하준영(20)은 2이닝 1피안타 1볼넷 3탈삼진 무실점으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최고 구속은 144km. 홍건희(27)와 문경찬(27)은 각각 2이닝, 1이닝 동안 한 점도 내주지 않았다. 다섯 번째 투수로 나선 박지훈(30)은 1이닝 1실점을 기록했다.

뉴스스

## “류현진, 메이저 가장 뛰어난 3선발”

부상으로 15경기만 등판 불구 7승3패 평균자책점 1.97

LA 다저스 류현진(32)의 2019시즌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다.

다저스 소식을 다루는 매체인 다저스네이션은 12일(한국시간) “류현진은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3선발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류현진이 지난해 보여준 모습 때문이다. 류현진은 2018시즌 부상으로 15경기만 등판했지만 7승3패 평균자책점 1.97을 기록했다.

다저스네이션은 먼저 다저스 경기를 중계하는 캐스터 조 데이비스가 최근 트위터에 남긴 글을 언급했다.

데이비스는 “류현진의 지난해는

정말 좋았다. 15경기에만 나왔지만, 평균자책점 1.97을 기록했다. 규정이닝을 채운 투수 중에서도 사이영상 수상자 두 명만 그보다 더 낮은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두 명은 제이콥 디그를(뉴욕 메츠·1.70), 블레이크 스넬(탬파베이 레이스·1.89)다.

류현진의 성적도 세세하게 들여다 봤다. 68피안타, 15볼넷, 89탈삼진, 이닝당출루율(WHIP) 1.008 등을 짚었다.

플터임을 소화하지 못해 “작은 표본”이라는 전제를 달면서 “평균자책점은 류현진의 경력 중 가장 낮았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삼진 수가 투구 이닝 보다 많았던 유일



한 시즌”이라고 특기했다. 류현진은 지난해 82%이닝을 던지며 탈삼진 89개를 속아냈다. “다저스의 코칭 스태프는 더 많은 헛스윙을 유도하기 위해 접근을 수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류현진이 그 결과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성적이 올 시즌 성적을

보장할 수는 없다. 하지만 류현진이 보여준 모습은 충분히 기대가 된다는 평가다. 다저스네이션은 “지난해보다 더 낮은 WHIP를 기록하지는 못하더라도, 메이저리그 최고의 3선발이 될 수 있다”고 내다

뉴스스

## KBO “카지노 출입” LG 구단에 경위서 제출 요청

LG 트윈스가 스프링캠프 중 원정 도박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경위서를 요청하고 즉각 확인에 나섰다.

LG는 호주 시드니에서 스프링캠프를 진행 중이다. 휴식일이던 지난 11일 차우찬 등 LG 소속 선수 4명이 시드니 쇼핑몰에 있는 카지노를 들리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한 야구

팬이 카지노에 있는 이들의 모습을 찍어 야구 커뮤니티에 올렸고 거액 배팅설까지 퍼지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LG 관계자는 “선수들이 휴식일에 쇼핑몰에 갔다가 카지노를 들른 것은 맞다면서도 “가장 많은 돈을 쓴 선수가 500호주달러(약 40만원)를 썼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카지노 출입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불과 몇 년전 임창용, 오승환(폴로라도 로키스) 등 일부 선수들의 원정 도박으로 KBO리그는 혼란을 치른 바 있다. 당시 사건을 계기로 KBO는 클린베이스볼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KBO도 사실 확인에 나서는 한편 징계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KBO관계자는 “LG 구단에 보고는 받았고,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구단으로부터 경위서를 받은 뒤 상벌위원회 개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KBO관계자는 “선수들의 인식이 아쉽다. 카지노 출입 자체가 불법이다. 관광객의 카지노 출입은 통상적으로 허용이 된다. 하더라도 리그 차원에서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법률 자문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최강희 감독, 우여곡절 끝 중다렌 부임 확정

중국 슈퍼리그 최강희 감독의 다렌 임성이 확정됐다.

다렌 이광은 11일(한국시간) 최 감독을 차기 사령탑으로 임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 감독은 3년 간 연봉 90억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현대를 K리그 최강으로 이끈 최 감독은 2018시즌 종료 후 중국슈퍼리그로 진출했다. 당초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팀은 텐진 취안젠이었다. 텐진은 최 감독에게 끈질긴 구애를 보낸 끝에 영입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지난달 터진 모기업 취안젠 그룹의 대형 악재로 최 감독의 입지가 크게 흔들렸다. 취안젠 그룹이 판매한 건강 보조식품을 복용한 여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과정에서 취안젠 그룹의 허위 광고 혐의가 포착된 것이다. 당



국의 강도 높은 수사에 취안젠 그룹은 사실상 공중분해됐다. 취안젠이 축구단 운영에서 손을 떼면서 최 감독은 무적 신세가 됐다.

이때 다렌이 손을 내밀었다. 전북 시절부터 최 감독을 눈여겨 본 다렌은 고액의 연봉과 전폭적인 지원금을 약속했고, 최 감독이 이를 수락하면서 계약이 성사됐다. 다렌은 완다 그룹을 등에 업고 있어 재정적으로 탄탄하다.

다렌은 지난 시즌 슈퍼리그에서 승점 38(10승6무14패)으로 11위에 올랐다.

자연산 돌레길

■ 실이 있는  
지리산 돌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돌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년 구례군은 지리산산천, 창세미륵, 회현사, 설전강,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묵야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